

오늘의 대중문화와 문화담론

김 성 기 / 문화비평가, 계간 『현대사상』 주간

우리의 문화담론은 너무 늦었거나 너무 일렀다. 왜 늦었느냐 하면, 그 담론이 '80년대의 목적 의식적 세력이 존재할 당시에 전개되었다면 그 기반 위에서 '90년대 대중문화의 새 동향을 변별할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 때문이다. 왜 빨랐느냐 하면, '90년대의 문화담론은 그 현실적 기반을 내생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작정 문화상품에 기우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그렇다.

오늘날은 문화담론 자체가 대중문화의 소비를 강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치 정보화 운동이 정보의 소비를 강권하듯이 말이다. 그러나 문화담론이 도전해야 할 대상은 바로 현실이다.

1

“그는 문화, 특히 대중문화에 대해서 뭔가를 말하기 시작했고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가수들이나 텔런트들의 이름, 내가 보았던 영화 제목들이 그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재미있었다. 나는 그의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 동안 웃고 있었다. 그도 웃음을 띤 얼굴로 말하고 있었다.”

김이소의 장편 소설 『거울 보는 여자』의 한 대목이다. “그가 자동차 백미러에 보였다.”로 시작해서 “그가 거울 속으로 사라졌다.”는

문장으로 끝나는 이 소설의 줄거리는 간단하다. 별로 많이 배우지 못한 한 직장 여성이 많이 배우고 여유있는 한 문화평론가와 만나자마자 잠을 자고 동거하고, 마침내 헤어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 작품이 권위 있는 문학상을 수상하였기에 작품 자체에 대해 평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두 가지 점이 흥미로워서 거론한 것일 뿐이다. 하나는 문화평론가라는 존재가 소설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다른 하나는 대중문화상품의 소비가 삶의 정체성을 형성함에 있어서 전례 없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내가 보기에 방금 지적한 두 가지 점은 '90년대 문화담론의 지형을 읽는 데 하나의 좋은 밑그림 구실을 한다.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더불어 대중문화 상품의 실제 소비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사실은 대중문화를 자신의 지적 화두로 삼는 젊은 지식인들이 늘어간다는 점이다. 단적으로 대중문화를 보는 시선의 변경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는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모든 것이 문화화되는' 방향으로 치달는 시대적 변동 속에서 대중문화의 문제는 단순한 지적 쟁점으로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대중문화 자체가 삶의 전반적 구도를 장악할 만큼 그 영향력이 커졌기에 그에 대한 시선의 변경이 일어날 터이요, 다른 한편 시선의 변경으로 인해 대중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새삼 일깨워지기도 할 터이다.

이제 대중문화는 더 이상 천대받지 않는다. 지식층마저 우군으로 끌어들여 나날이 만개하는 중이다. 이 대목을 일컬어 문화이론가들은 문화 대중주의(cultural populism)의 부상이라고 한다. 이 논의에 따르면, 대중문화는 저간의 문화 엘리트주의에서 규정하던 바 그대로 이른바 마취제 문화가 아니라 자율적인 열린 장이며 그 위에서 의미와 즐거움과 저항의 에너지가 솟아난다는 것이다. 이 문화 대중주의는 '80년대 중반 이후 서구 문화연구(cultural studies)에서 두드러진 지적 추이로서, '90년대 이후 우리의 대학사회 및 대학문화 안팎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나는 판단한다. 왜 그런가.

오늘의 '90년대가 문화의 시대라는 규정에는 일면 과장이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표현임을 전제로 하자. 그럴

경우 '이념의 시대가 갔다'거나 '소비사회가 도래했다'거나 하는 시대 진단이 뒤따른다. 현재를 중심으로 과거와 미래를 단선적으로 일목요연하게 기획하는 어떤 시도도 적합성과 현실성을 갖기 어려울 만큼 시대 환경이 변했다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대개가 인정하는 내용이며, 또 어느 면 과거지사이기에 논외로 하자. 좀 더 생산적인 질문은 이와 같으리라. 문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도래한 문화담론의 기본 성격은 무엇이고, 그것은 무엇을 하고자 했는가.

우선 문화담론이라 함은 문화에 대한 이론적·지적 논의라고 풀어 쓸 수 있다. '이론적·지적'이란 표현에는 기존의 상투적인 문화 인식으로부터 스스로를 의식적으로 구별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문화라는 것의 본질과 성격에 대한 자의식적인 인식이 일어난 것이다. 여기서 '자의식적'이란 곧 문제의 대상을 스스로 삶의 일부로 접근하는 태도를 말한다. 한마디로 '자신의 문제'로 대하는 것이다. 이처럼 문화라는 것을 자신의 절실한 삶의 문제로 삼게 된 일은 큰 소득이 아닐 수 없다. 저 밖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 자신의 삶에 절실한 그 무엇으로 문화를 대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고급문화/저급문화의 오랜 구분은 별 문제가 안 된다. 사실 그런 구분은 펍한가하고 편협한 문화 인식을 수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사정에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 탓도 크다. 특히 오늘날 위세를 떨치고 있는 전자 매체는 기존 문화의 생산 및 소비 메커니즘에 일대 변모를 일으키며 문화의 내용과 형식에 새로운 접근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다. 게다가 미디어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 문화는 나날의 일상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기에, 갈수록 미디어 문화는 단순한 볼거리로 그치지 않고 그 자체가 삶의 내면 쪽으로 파고드는 형국이다. 요컨대 오늘의 문화 영역은 사람들에게 일상의 안내자이자, 스스로의 삶을 돌이켜보게 하는 거울 구실을 하는 것이다.

2

이렇듯 나날의 삶을 안내하고 비추는 오늘의 문화는 어떻게 인식되고 있을까. 문화담론의 속을 들여다보겠다는 뜻이다. 앞서도 지적했듯이 문화담론은 예전과는 다른 문화관을 피력하고 있다. 그런데 그 담론의 내용은 대체로 난해한 편이다. 새 분야라서 그런지 전문용어나 뜻 모를 개념이 많이 등장하는 편이다. 간혹 대중문화를 평하는 문화 비평이 대중문화 자체보다 더 어렵다는 편견이 나오곤 하는 것도 그와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문화담론의 즐거리는 있다. 단적으로 문화는 일상적 삶의 과정이고, 욕망의 소재지이며, 새로운 정치의 장이라는 인식이 그 기본향을 이룬다.

먼저, 삶의 과정으로서의 문화가 있다. 문화는 곧 일상적 삶을 구성한다는 의미에서 진행형의 세계에 속한다는 주장이다. 내 삶이 내 것으로, 내가 자유자재로 통제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 그 자체가 문화라는 타자와의 만남 속에서 구성되는 중에 있다는 깨달음 말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일상생활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각종 대중문화 상품에 휩싸여 그것을 소비하는 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인식을 내포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문화상품의 소비란 더 이상 단순

한 오락이나 시간 죽이기에 머물지 않으며 생생한 삶의 경험을 일구는 장일 수 있다는 인식이다.

다음, 문화가 욕망의 소재지라는 발상에는 모종의 유토피아적인 전망이 배어있다. 짝 짜인 이 세상에서 또 다른 살 만한 세계를 미리 맛보고 예감하는 소재지가 바로 문화라는 것이다. 흔히 문화의 본령을 상상력에서 찾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상상력은 전복과 파괴에의 의지를 품는다. 억압하고 제한하는 모든 유형 무형의 질서에 과감히 문제를 제기한다. 럭비공처럼 스스로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태에 고스란히 몸을 맡기고 끊임없이 표류하면서 욕망의 무한 분출과 무한 추구를 시도한다. 이런 의미에서 문화는 모든 관습과 터부를 타기하는 동시에 미지의 세계를 여는 소재지로 다시금 부각되는 것이다.

끝으로, 문화는 곧 정치라는 인식이 있다. 문화가 한가한 음풍농월의 세계는 아니라는 뜻이다. 대신 그것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기호나 상징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갈등과 쟁투의 장인데, 이런 인식에 힘입어 문화정치(cultural politics)라는 분야가 새로운 정치 개입의 틀로 높이 평가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문화정치의 논리는 예술 창작을 가리키는 협의의 문화 개념이나 형식적·절차적 정치권력을 가리키는 협의의 정치 개념 그 어느 것보다도 거리가 멀다. 그보다는 문화 자체를 정치적 개입의 새로운 지형으로 상정한다.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M. Foucault)가 권력은 모세 혈관마냥 도처에 퍼져 있다고 했듯이, 문화는 그러한 권력의 세계와 서로 한몸을 이루고 있으며, 그렇기에 단번에 승패가 나지 않은 채 계속되는 그런 '열린 쟁투의 장'으

로 보아야 한다는 논지다.

3

위에서 '90년대 들어 지적 조명을 얻고 있는 문화담론의 기본 성격을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눠 살펴보았다. 하지만 문화 '담론'이라 할 때 그것은 단순한 이야기나 논리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본시 담론은 사회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며 사회적인 힘이다. 그것은 관조적 지식과는 다르다. 개인 의식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사적 언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언제든지 발화되어 공적인 언어가 되고, 더 나아가 세상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담론으로 된다. 담론의 일차적 수준은 대상과의 성찰적 관계에서 찾아진다는 점에서, 담론은 경제적인 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테면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 조건을 지적으로 성찰함으로써 노동과정의 혁신을 도모할 수 있다. 새로운 노동 과정은 자신의 노동에 대한 성찰, 곧 담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화담론은 어떤 현실적 효과를 산출하였을까. 오늘 문화담론의 현주소를 묻는 것이다. 우선 문화담론을 구축하는 주요 인자를 꼽자면 문화비평가, 매체, 그리고 청중을 들 수 있다. 문화비평가란 문화담론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전문인을 말한다. 일단 문화담론의 주발신자 역할을 한다. 그런 뜻에서 문화비평은 각종 문화현상을 책 읽듯이 독해하는 능력, 즉 문화 읽기 능력을 갖춘 이가 행하는 비평적 작업이라 정의할 수 있다. 또 매체란 그러한 문화비평을 모으고 일반인에게 전달하는 미디어를 말한다. 얼마 전부터 속속 창간되어 대학생들에

게 인기를 얻고 있는 문화잡지들이 그 전형적인 사례다. 그리고 청중은 그러한 비평가 잡지를 매개로 하여 자신의 문화 해독력(cultural literacy)을 가다듬고 재정립한다.

이상의 구분은 어디까지나 분석적인 수준에 의거한 것일 뿐 실제로는 서로 얽혀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올바른 판단일 터이다. 이런 단서 위에서 '90년대 문화담론의 현실태를 조망해 볼 경우, 다음 세 가지 점이 크게 눈에 띈다.

첫째, 문화비평가가 갑자기 늘어난다는 점이다. 기존 문학비평가의 지위를 나뉘게 하는 듯한 인상이다. 모름지기 문학비평가란 문학의 본질과 성격에 대해 전문적 감식안을 소유한 이라고 한다면, 문화비평가 역시 그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일 게다.

그러면 왜 문화비평가라는 직함이 생겨나는 것일까. 이 점은 문화의 중심축이 활자매체로부터 전자적 영상매체로 바뀌는 문화변동을 배경으로 이해될 수 있다. 활자매체와 전자매체 사이에 연속성이 있느냐 여부는 논란의 대상으로 남아 있지만, 전자매체를 중심으로 문화 지형이 재편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대개 동의하는 편이다. 때문에 전자매체의 옷을 입는 추세를 보이는 대중문화의 걸과 속에 대한 지적 관심이 높아지는 것인데, 이 추이는 문학비평가나 문화비평가나 가릴 것 없이 드러난다.

둘째, 문화담론이 물증보다는 심증 혹은 의지를 앞세운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 문화담론의 커다란 약점이다. 실제 현장에서 실천되는 '보이지 않는' 문화의 움직임보다는 눈 앞에 보이는 온갖 문화상품만을 겨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정작 문화담론이 품고 있던 원칙, 즉 대안적 문화의 창조

와 실천에 도움을 준다는 원칙을 저버리고, 단지 기성의 또 다른 문화상품만을 읽고 해석하는 조짐이 역력하다. 이에 병행하여, 사회 상황이나 문화 환경이 바뀌었다, 저항의 내용과 형식도 마땅히 변해야 한다 등등의 논법이 '좋은 옛것보다는 나쁜 새것이 좋다'는 인식을 낳는다. 새로운 문화 현상이라면 뭐든 긍정적으로 보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서태지 파동에서부터 동성애 논란에 이르기까지 '90년대 문화담론의 주류가 겨냥하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이런 류의 문화담론에서 즐겨 쓰는 '혁명', '해체', '반란', '파괴' 같은 용어들은 단지 은유에 불과하다는 판단이다. 저마다 전위와 이방가르드를 자임하지만, 실은 지적 제스처나 새도 복싱에 그치고 마는 것은 아닌가 해서 하는 말이다. 논점의 핵심은, 그 같은 문화담론이 고유의 문화적 감식안을 사회적 갈등이 엄연히 현존하는 현실에 되돌려 설명하려는 의지가 있느냐의 여부에 있다.

셋째, 문화담론이 외래의 이국적인 논의에 쫓겨 약하다는 점이다. 욕망과 상상력의 해방이 제창되고 있지만, 그 상상력의 아이디어나 표현방식은 인터넷에 널려 있는 문화정보를 그대로 차용하는 데 그치기 십상이다. 재즈나 컬트 무비, 심지어는 록 같은 장르에 대한 대중문화관 일각에서의 뜨거운 열정도 따지고 보면 그 열정에 버금가는 자체의 창조력을 구비하지 못한다는 인상이다. 문화담론이 대중매체의 유혹에 약하다는 점도 덧붙여 지적할 수 있다. 문화담론 저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분투하면서도 결국에는 기존의 대중매체를 그대로 추수하기 십상이다. 서로 우위를 차지하려 경쟁하는 것 자체가 담론적 실천일 수 있으

나, 그 개성적인 주의주장마저 대개는 대중매체의 그늘 속으로 수렴된다는 점이다. 매체를 통한 스피커만 갖고서 또 하나의 권력을 형성하겠다는 조짐마저도 있다.

종합하면, 우리의 문화담론은 너무 늦었거나 너무 일렀다. 왜 늦었느냐 하면, 그 담론이 '80년대 우리 사회의 목적 의식적 세력이 존재했을 당시에 전개되었더라면 그 기반 위에 '90년대 대중문화의 새 동향을 넉넉하게 맞서면서 변별할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 때문이다. 왜 빨랐느냐 하면, '90년대의 문화담론은 그 현실적 기반을 내생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작정 문화상품에 기우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그렇다. 단적으로 '90년대 문화담론은 각종 문화상품의 전시장이라는 뜻에서 일종의 '문화쇼'이라 부름직하다. 문화담론 자체가 대중문화의 소비를 강권하는 것이다. 마치 정보화 운동이 정보의 소비를 강권하듯이 말이다.

4

지금 이 세기말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또는 그래야만 한다고 믿었던 여러 가치들이나 세계관이 당연하지도, 옳지도 않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는 시대이다. 역설의 시대니 포스트모던 시대니 하는 구호는 그래서 나온다.

같은 맥락에서 문화의 시대라고 하지만, 실은 탈산업적 소비사회의 도래라고 바꿔 말해야 한다. 모든 것이 상품화되는 시대라는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담론은 역설로 맞서고자 했다. 모든 것이 상품화되는 상황일수록 역으로 그 속에서 대안적이고

제대로 된 문화의 잠재력을 일깨우려는 지향을 품고 있었다. 이 대목이 바로 문화담론의 한 성취이다.

그러나 그 성취가 현실화되는 데는 여러 난관이 도사리고 있음을 앞에서 지적하고자 했다. 모든 것이 상품화되는 시대에 문화만이 고상한 영역으로 남을 수 있겠느냐는 반문도 있을 줄 안다. 하지만 우리 문화담론은 그러한 문화 시대의 도래에 역설적으로 맞설 때, 비로소 제대로 꽃필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그렇다고 별 뽀족한 대안은 없지만, 향후 문화담론의 향방 정도는 스케치해 보고자 한다.

오늘날 문화담론의 과제는 현기증 나는 대중문화의 세계를, 저 밖의 현실 세계로 굴절시켜서 제대로 이해되지 못한 채 남아 있는 저 벽찬 현실을 제대로 살아보도록 돕는 데 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장 보드리야르(J.Baudrillard)의 표현 방식을 원용해 말하면, 지금까지 대중문화가 해온 일이란, 현실을 반영하다가, 그것을 왜곡하더니, 그것을 가리워버리고는, 오늘날에 와서 대중문화는 현실과 아무 연관 없는 가상현실로 나서고 있다. 그래서 소위 문화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현실보다 더 현실적'으로 보이는 가상현실에 현혹되며 순전히 인위적인 모조물의 공간으로 몰려들고 있다. 테마파크로 대변되는 레저나 투어리즘(tourism)의 세계, 텔레비전이나 영화가 내뿜는 현란한 이미지의 세계, 인터넷과 더불어 열리는 사이버 스페이스의 세계 등이 그런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담론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대중문화 내 문화담론의 내파(內破)'라 규정할 수 있을 터이다. 문화담론은 대중문화와의 만남 속에서 성찰적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대중문화가 빚어내는 온갖

가상현실로 빨려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아방가르드적인 삐딱함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소비대중문화를 화사하게 장식하는 데 그쳐 '위안과 기만의 수사학'을 남발하는 것이다.

이제 겨우 틀을 잡기 시작한 문화담론에 대한 이런 식의 비판이 지나친 기우일 수 있음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현재 문화담론이 '위로부터' 문화상품으로 주어지는 미디어 문화에 쏠리는 반면, '밑으로부터' 대중문화의 창조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하며, 그에 더하여 '대중문화 속으로!'라는 구호 아래 정작 대중의 삶은 망각한 채 스스로 대중 위에 군림하려는 듯한 '문화 귀족'의 포즈가 여실하게 드러난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 의문을 푸는 데 좋은 참고 자료가 하나 있다. 영국의 중진 사회학자 콜린 캠벨(C.Campbell)의 『낭만적 윤리와 현대 소비주의의 정신』(*The Romantic Ethic and the Spirit of Modern Consumerism*)(1987, Polity)이 그것이다. 막스 베버의 고전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을 패러디한 이 책은 현대 소비주의의 형성 과정을 분석한다. 문화연구 분야에서 소비주의를 주제로 한 논의는 많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이 책의 논의를 중시하는 이유는, 소비주의의 문화적 의미에 대한 저자의 섬세한 인식 때문이다. 캠벨의 논의에 기대어 나는 두 가지 주장을 가설적이거나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소비주의는 낭만주의의 저항 정신이 순치된 결과로 나타난 소산이다. 원래 낭만주의는 19세기 말 유럽 문화를 풍미하던 사조로서 급진적이고 저항적인 충동을 지니고 있었다. 전복과 위반의 정신 말이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의 벽 앞에 순치되면서

다른 배출구를 찾는다. 소비주의와 합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현대의 소비주의 문화는 순치된 낭만주의에게 남겨진 마지막 놀이터인 셈이다.

둘째, 문화담론이 소비주의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다분히 '일상생활의 심미화'를 조장하기 쉬우며, 그 결과로 문화상품과 더불어 사는 삶만이 미학적인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 서두에서 언급한 문화 대중주의가 문화 민주주의의 잠재력을 잃고 단지 삶의 스타일화 내지 장식화에 기우는 것도 다 그 때문이다.

거듭 말하자. 문화담론은 뼈까번쩍하고 새로운 문화로 도피하기 위한 망명 비자가 아니다. 문화담론은 현실세계가 내준 여권이요, 문화의 파노라마적 세계는 우리의 여행지일 따름이다. 그런 문화가 만들어내는

각종 문화상품에 흘러서 그 세계로만 파고드는 한, 현실의 망각은 파국처럼 오며, 문화상품의 끊임없는 유희 속에서 '즐거운 망각' 혹은 '일장춘몽의 즐거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 대중문화가 일으키는 온갖 문화상품의 화려한 무늬, 즉 대중문화의 스펙트럼을 다시 현실세계로 굴절시킬 때, 현실은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날 것이다. 문화담론이 도전해야 할 대상은 바로 현실이다. ■

김성기/서울대학교 자연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 서 사회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한양대, 서울시립대 등에 출강하면서 현재 『현대사상』(계간) 주관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 『포스트모더니즘과 비판사회과학』, 『모더니티란 무엇인가』, 『패스트푸드점에 걸린 문화비평』 등이 있다.